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왜 오류인가?:

논증의 목적과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평가* **

선우 환

【국문요약】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오류라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섬세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렇게 이해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오류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증 자체의 본성과 목적에 대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논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반적 제안을 한 후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이해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전 논문에서 제시했었던 다층적 이론을 논증 자체의 주된 목적에 대한 이 논문의 제안의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해서, 그로부터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잘못이고 오류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류인가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주요 이론들-잭슨(F. Jackson), 월튼(D. Walton), 샌포드(D. Sanford), 바이로(J. Biro)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그 기존 이론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지니는지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한다.

【주요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논증의 목적, 순환성의 오류, 잭슨, 월튼, 샌포드, 바이로

투고일: 2016.4.9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6.6.9 게재확정일: 2016.6.13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한다.

1. 들어가는 말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들 중에서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the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는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다른 대부분의 오류들은 형식적 오류가 되었건 비형식적 오류가 되었건 논증의 전제들이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그런 오류를 범하는 논증에서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전제들이 설사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건부정의 오류나 선언지 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들은 자칫 타당한 논증 형식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논증 형식을 사용하여서,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는 논증들이다. 또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나 잘못된 유비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들은 전제들이 결론을 귀납적으로 충분히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논증들이다. 또한 권위로부터의 논증의 오류나 연민으로부터의 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들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전제들이 사용되어서,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는 논증들이다.¹⁾ 반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제들이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 또는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에서 결론은 전제들로부터 너무나

1) 이 중에서 연민으로부터의 논증의 오류와 같은 몇몇 오류들은 논증이 사용되어야 할 맥락에서 아예 논증이 아닌 다른 설득 방식(예를 들어 감정적 설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 대안적 설득 방식을 가능한 한 논증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하였을 때에 그 논증(혹은 논증 유사물)의 전제들이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성립한다.

잘 따라 나온다. 그런 논증에서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은 분명히 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얼핏 간단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증명해야 할 결론을 미리 전제로 사용하는 오류(첫째 방식), 또는 증명해야 할 결론을 함축하는 내용을 지닌 문장을 전제로 사용하는 오류(둘째 방식), 또는 결론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할 문장을 전제로 사용하는 오류(셋째 방식) 등으로 흔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잘못된인가? 더구나 방금 전에 세 가지 대안적 방식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이해를 늘어놓았는데, 그 중 (너무 좁은 이해 방식인 첫째 방식을 제외하면) 둘째와 셋째 방식에서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론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전제를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연역적으로 제대로 따라 나온다면 당연히 성립해야 하는 관계이다.²⁾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너무 잘 따라 나오는 것이 문제인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어떻게 이해하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오류인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³⁾

2) 그리고 이 중 셋째 방식에서 결론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전제를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연역적으로가 아니라도) 귀납적으로 제대로 따라 나온다면 당연히 성립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귀납적으로 충분히 더 강한 논증일수록, 그 논증의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3) Robinson (1971)과 같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입장의 이론가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Sorenson (199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존재한다’와 같은 논증이 왜 좋지 않은 논증인지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논증들에 대해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측면에서 그 결함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의 합리

우리는 우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더 깊고 섬세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렇게 이해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오류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증 자체의 본성과 목적에 대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이해하고 규정하기 위한 다층적 방식을 제안했었다.⁴⁾ 새로운 본 논문에서는 그런 제안을 논증 자체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성찰의 틀 속에 자리 잡게 해서, 그 제안으로부터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잘못이고 오류인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류인가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고 (필자 자신의 이론의 관점에서) 그 기존 이론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논의하겠다.

2. 논증의 목적

인공물 개념들은 자주 그 인공물의 주된 목적 또는 기능을 언급하지 않고는 정의되거나 이해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의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앉기 위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과 크기와 재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의자의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는 할 수

적 유용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박준호(2011)의 경우, 어떤 선결문제 요구는 오류이고 어떤 선결문제 요구는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오류인 선결문제 요구와 오류가 아닌 선결문제 요구를 공통적으로 ‘선결문제 요구’로 묶어 줄 수 있는 일반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오류가 아닌 “선결문제 요구”가 있다면 그것까지 굳이 ‘선결문제 요구’라고 여전히 부르며 다른 것과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오류로 분류하기에 적합한 ‘선결문제 요구’를 규정하고 그것이 왜 오류인지를 설명하는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4) 선우환 (2010).

없을 것이다. 의자는 그 위에 앉는 용도 이외에도 다른 용도들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의자로 무엇인가를 내리칠 수도 있고, 의자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으며 의자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다른 기능들은 의자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반면 그 위에 앉기 위한 기능은 의자의 여러 가능한 기능들 중에서도 의자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의자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논증(argument)들은 일반적으로 (추상적 대상들로서의) 문장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언어적 대상들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그 점에서 논증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언어행위인 논증 행위(argumentation)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의 개념은 순수하게 추상적인 대상들만을 언급함으로써 이해될 수는 없다. 문장들의 모든 집합이 다 논증인 것은 아니고, 문장들의 집합 중에서 어떤 것이 논증인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형식적이거나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논증이란 P_1, P_2, \dots, P_n 이 C 에 대해서 이리이러한 논리적 관계(예를 들어 함축 관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문장들 P_1, P_2, \dots, P_n, C 의 집합(또는 더 엄밀하게, 그런 문장들 P_1, P_2, \dots, P_n 의 집합과 C 의 순서쌍)이라고 정의되거나 이해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타당한(또는 올바른) 논증들만이 논증들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타당하지 못한(또는 올바르지 못한) 수많은 논증들을 논증 아닌 문장 집합들로부터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문장 집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문장 집합만을 가지고서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문장 집합만 들여다보았을 때, 그 집합이 누군가가 논증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그렇지만 전연 타당하지는 못한 논증을 한 결과의) 문장들의 집합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

기의 주장들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그냥 모아놓은 집합인지, 아니면 아예 임의로 선택된 문장들의 집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문장 집합은 동시에 그 가능성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논증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논증들이 문장 집합들이라는 것 외에 그 문장 집합들이 어떤 의도로 선택된 문장 집합들이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⁵⁾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선택된 문장 집합들이 논증들인가? 다시 말해서 논증의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논증은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어떤 주장(즉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주장들(즉 전제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선택된 문장들의 집합, 즉 하나의 문장(결론)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선택된 문장들(전제들)의 집합이 논증이다.⁶⁾

그런데 어떤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에는 필수불가결하게 그 주장을 누군가에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이 연관되어 있다. 그 ‘누군가’가, 의도를 가진 사람 자신이 되었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말이다. 일단 이를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한 설득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설득적 목적이 너무 좁게도 너무 넓게도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겠다.) 즉 논증

5) 다시 말해서, ‘논증은 X의 형식적 구조를 가진 문장 집합이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정의할 수는 없고, ‘논증은 이러한 의도로 선택된, X의 형식적 구조를 가진 문장 집합이다’라는 식으로 해야 논증을 정의할 수 있다. 다만 논증행위들과 달리 논증들이 가진 추상적 성격은, 논증을 규정하는 데에 논증의 일반적 의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각각의 논증에 대해 그 특정한 논증에 대한 특정한 의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6) 또는 보다 엄밀히 정의해서, 그런 의도로 선택된 문장들의 집합론적 대상, 즉 하나의 문장(결론)을 한 원소로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선택된 문장들(전제들)의 집합을 또 다른 원소로 하는 순서쌍이 논증이라 할 수 있다.

의 주된 목적은, 전제들을 근거로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에 있다.

물론 누군가에게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방법에는 논증을 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그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설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특정 주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설득할 수도 있다. 논증의 목적은 단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다른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서 정당화함으로써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논증이 목적으로 하는 설득은 정당화를 통해 이루는 설득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논증의 주된 목적은 전제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정당화함으로써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논증의 전제들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논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론을 받아들일 합리적 요구를 부과한다.

필자는 한 때 논증의 설득 기능과 정당화 기능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논증의 설득 기능은 주로 두 사람 이상의 논쟁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논증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기능이고, 논증의 정당화 기능은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증을 사용할 때 주로 나타나는 기능이라고 이 두 기능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논증의 설득 기능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기능이고, 논증의 정당화 기능은 이미 받아들여진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기능이라고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⁷⁾

그러나 논증의 기능에 대해 더 반성해 보면 이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⁸⁾ 우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논증이 가지는 설득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당화를 통한 설득 기능이다. 필자가 앞으로 논증의 기능으로서 ‘설득 기능’을 이야기할 때에는 ‘정당화를 통한 설득 기능’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설득 기능’에는 당연히 정당화의 측면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논증이 가지는 정당화 기능 중에서 설득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흔히 여겨질 만한 경우들도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설득 기능에 통합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설득에는 최소한 두 사람-설득하는 사람과 설득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논증을 발견하거나 구성하거나 제시한 사람 자신이 자신의 논증을 통해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논증이 설득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로 분류하고자 한다. 논증이 (필자가 의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설득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증자가 먼저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동일한 결론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의도가

7) 이와 비슷하게 시노트-암스트롱(W. Sinnott-Armstrong)은 논증의 두 주된 목적으로서 청자 정당화(audience justification)와 논증자 정당화(arguer justification)를 구분한다. Sinnott-Armstrong (1999) p. 181.

8) 논증에 대한 대화-화용론적 접근에서는 논증의 주된 목적이 대개 대화 상황에서의 설득으로 간주되고 (Woods, Irvine and Walton (2000) 등), 논증에 대한 인식적 접근에서는 논증의 주된 목적이 대개 논증자의 믿음에 대한 정당화나 지식 획득으로 간주되는 (Biro and Siegel (2006) 등) 경향이 있다. 이후에 설명하듯이, 필자는 이 두 목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논증의 주된 목적은 이 두 목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기존의 두 접근은 이 두 목적을 분리해서 각각 하나의 목적에만 치중해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규정하려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논증자가 일련의 문장들(전제들) P1, P2, ... Pn을 받아들이고 그 문장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문장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졌다는 태도를 가지고 도출해 보니 문장(결론) C가 따라 나와서 전제들 P1, P2, ... Pn와 결론 C로 이루어진 논증을 완성(또는 발견)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완성한 논증에 의해 결론 C를 받아들일도록 스스로 설득되었다고 하자. 그 논증자는 그 특정 결론 C가 따라 나올지는 몰랐고, 그 특정 문장 C를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도록 스스로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하나의 논증으로서 의도한 이상 그는 논증의 결론으로서 따라 나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것을 의도하면서 그 논증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논증자와 논증 상대방이 동일 인물이기는 하지만) 논증자가 논증 상대방(즉 자기 자신)을 설득할 의도가 논증 구성에 전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득 기능을 갖지 않는 정당화 기능의 주요한 다른 경우로서 논증 상대방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문장을 결론으로 하는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논증 상대방은 결론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논증자는 논증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던 결론을 받아들여지게끔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논증을 제시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증자는 설득 목적과는 구별되는 정당화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싶은 유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논증자가 논증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받아들이지 않던 결론을 새로이 받아들여지게끔 설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증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론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정당화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할 것을 설득하는 목적과 분리되기는 어렵다. 논증 상대방

이 전에 받아들이지 않던 문장을 새로이 받아들여가끔 설득하는 것과 전에 받아들였던 문장을 계속 받아들여가끔 설득하는 것 사이에 설득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논증이 제시된 시점 t 이후에만 관련해서 보면 두 경우에 모두 그 시점 이후에 결론 C 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도록 설득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둘 사이의 차이는 단지 시점 t 이전에 논증 상대방이 C 를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설득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거 시점에 있어서의 차이는 설득 내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따라서 두 경우의 차이는 같은 유에 있어서의 종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설사 두 경우를 구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두 경우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적 부류 내에서의 분류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설득 기능’은 그러한 두 경우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논증자가 논증 상대방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문장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경우에도, 앞서의 경우와 비슷하게 논증 상대방은 논증자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논증자는 자기 자신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문장이 계속 견지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결론으로 하는 논증을 구성해 보고, 그런 구성이 성공적이어서 그 문장을 받아들일 합리적 요구가 부과되면 그 합리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계속 견지하도록 스스로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사람이 혼자 자신의 기존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에 논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설득 기능을 지닌 논증 속에 통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필자가 논증의 주된 기능이 설득 기능이라고 할 때, 한편으로 이는 오직 (전제들에 근거한) 정당화를 통한 설득 기능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는

논증 상대방이 논증자 자신이든 논증자 이외의 사람이든 그리고 논증 상대방이 결론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든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든 그가 결론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는 기능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상 언어의 ‘설득’이란 말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가 문제된다면, ‘설득’이란 말을 사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논증의 주된 목적은, 전제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정당화함으로써 결론을 (새로 또는 계속) 받아들일 합리적 요구를 누군가(자기 자신일 경우까지 포함)에게 부과하는 데에 있다.

다만 이런 긴 구절을 간단히 표현할 말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필자는 ‘설득’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그 말을 위의 긴 구절에 대한 약식 기호로 이해하더라도 무방하다.

논증의 비교적 중요한 기능으로서 위에서 이야기한 논증의 주된 기능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런 유력 후보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논증자는 자기 논증을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자기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받아들이는지를 알리기 위해 논증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논증을 제시하더라도 그 논증을 들은 사람은 그 논증의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논증에 의해 결론을 받아들일 합리적 요구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자는 자기가 어떤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들이 근거가 되어서, 결론을 받아들이는지를 단지 보고하는 목적을 위해 자기의 논증을 들려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증이 원래 설득하는 (또는 설득했던) 대상은 논증자 자신이다. 그리고 논증자는 자기를 설득한 논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논증의 이런 기능을

‘설득 기능’과 구별하여 ‘보고 기능’이라 하겠다.

논증의 보고 기능은 논증의 설득 기능으로부터 파생된 기능이다. 즉 논증은 먼저 설득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런 목적을 위한 논증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고 목적을 위해 다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파생 관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논증자가 자기를 설득한 논증을 먼저 구성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논증의 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논증자가 자기를 설득하는 논증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그 논증이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기능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기능으로부터 파생적이다. 왜냐하면 그 논증의 제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논증자를 설득하는 근거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보고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방식은 논증 이외의 경우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문문의 주된 기능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문문이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된 후 나중에 정보요구의 목적 없이 화자가 어떤 정보를 요구했었는지를 단지 보고하기 위해 의문문을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논증의 보고 기능이 설득 기능과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설득 기능만큼 논증의 주된 기능의 지위를 본격적으로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⁹⁾

논증이 보고 목적을 위해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논증을 듣는 사람-이를 ‘청자’라 하자-과 논증이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이를 ‘논증 상대방’이라 하자-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논증자는 자기 자신을

9) 그러나 논증의 보고 기능이 설득 기능과 같은 정도로 논증의 주된 기능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다. 필자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이후의 논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특별히 전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논증 상대방으로 하여 논증을 제시하면서, 청자에 대해서는 설득할 의도 없이 단지 보고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자’와 ‘논증 상대방’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려한 목적들 이외에도 논증은 무수히 많은 다른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논증을 잠이 안 올 때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논증을 비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암호로 삼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논증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논증들이 이런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논증의 가장 전형적이고 주된 사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논증의 이런 다양한 사용을 막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¹⁰⁾

논증이 설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목표된 설득이 정당화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면 그 때의 논증은 주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경우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갑이 다른 사람 을에게 문장 C를 믿도록 설득하기를 원하고, 갑은 그 목적을 위해 을에게 P를 전제로 하고 C를 결론으로 하는 한 부당한 논증을 제시한다. 그런데 을은 P의 내용을 이해할 지적 능력도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지적 능력도 없다. 그리고 갑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을은 어떤 논증이든지 제시되면 그 논증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그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갑은 을의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을이 C를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 을이 분명 이해하지 못할 부당한 논

10) 또한 논증의 평가에 있어서도, 어떤 논증은 잠이 잘 오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논증이고 어떤 논증은 암호화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좋은 논증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좋은 논증’과 ‘좋지 못한 논증’을 구분할 때에는 우리가 ‘논증의 주된 기능’이라고 부른 목적과 관련해서 좋은 논증을 ‘좋은 논증’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도 잘 맞을 것이다.

증을 제시한다. 그 경우 갑은 을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 논증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론을 정당화함으로써 을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 논증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논증의 전형적이고 주된 목적에 잘 부합하는 경우는 아니다.

더 나아가 논증이 정당화를 통한 설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당화가 전제들을 근거로 한 정당화가 아니라면 그때의 논증은 주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경우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하자.

- (1)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 (2) 그러므로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다.

이 논증은 전연 타당하거나 올바른 논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이 결론 문장을 상대방에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논증의 결론 문장 자체의 존재가 결론이 말하는 바에 대한 증거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증을 통해 결론을 정당화시켜 상대방을 설득했다 하더라도, 그런 정당화는 논증의 전제들을 (명제적) 근거로 한 정당화는 아니고 따라서 논증의 전형적이고 주된 목적에 잘 부합하는 경우는 분명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논증이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전제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정당화함으로써 결론을 받아들일 합리적 요구를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설득적 목적이 논증의 가장 근본적이고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다층적 이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평가하는 논증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증들은 모두 흔히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이라고 여겨진다.

(논증 1)

- (1) 공룡은 운석 때문에 멸종했다.
- (2) 그러므로 공룡은 운석 때문에 멸종했다.

(논증 2)

- (1) 권력에 대한 욕구는 인간 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인 특성이다.
- (2)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권력욕을 지닌다.

(논증 3)

- (1) 박철수는 살인을 한 남자이다.
- (2) 그러므로 박철수는 살인자이다.

(논증 4)

- (1) 나의 오른손이 존재한다.
- (2) 나의 오른손은 외부 대상이다.
- (3) 그러므로 외부 대상이 존재한다.

(논증 5)

- (1) 성경에는 ‘신은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 (2) 성경은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
- (3)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책에는 참이 아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 다양한 논증들은 얼핏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똑같은 잘못과 결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포괄해서 다루기는 쉽지 않다. 그것들이 모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사례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면 각각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논증 1이 지닌 문제는 결론과 똑같은 문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논증 2의 경우에는 전제와 결론이 똑같은 문장은 아니고 대신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이라는 점이 문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논증 3의 경우에는 전제와 결론이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은 아니고 대신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문제인가?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면 당연히 전제는 결론을 함축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형식의 연역 논증이 일반적으로 오류 논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 p 이고 q

(2) 그러므로 p

그렇다면 논증 3은 위의 논증 형식과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무어에 의해 제시된 유명한 논증 4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제 중 하나가 결론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전제가 혼자서 결론을 함축하는 것도 아니다.¹¹⁾ 더구나 그 논증은 다음의 논증과 형식이나 구조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¹¹⁾ Moore(1959)에서 제시됨.

(논증 6)

- (1) 오리너구리가 존재한다.
- (2)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는 포유동물이다.
- (3) 그러므로 알을 낳는 포유동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논증 6은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증 4의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된인가?

논증 5의 경우에 전제 (2)가 결론 (4)를 함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은 (2) 문장 하나만을 전제로 하는 다음 논증과 같은 식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논증 7)

- (1) 성경은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
- (2)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 각각의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결함들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이름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사례들과 문제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그것들을 모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분류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어 논증 5와 논증 7을 모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논증이 가진 문제는 똑같은 것은 아니며 똑같은 측면에서의 결함은 아니다. 우리에게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여러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기준들이 서로 아무 상관없는 기준들이라면 그것들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정당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의 다층적 이론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들 사이에 체계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층위의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준에 기초해서 고려해야 할 다른 층위의 기준들을 고려하고 그 기준들 사이의 단계적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이 이론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해 다음에 차례로 살펴보는 세 가지 층위-(I)에서 (III)까지의 기준과 설명을 제시한다.¹²⁾

우선 첫째 기준부터 살펴보자.

- (I) 어떤 논증이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 그 논증이 그 맥락의 논증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전제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논증은 그 맥락에 상대해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

이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맥락 상대적인 기준이다. 즉 논증이 그 자체로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거나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 그 맥락에 상대해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거나 범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무어의 논증 4가 외부 대상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회의론자와의 논쟁의 맥락에서 제시될 때 그 논증은 그 논쟁의 맥락에 상대적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만, 다른 논쟁의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는 얼마든지 좋은 논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논증 4와

12) 이 이론은 선우환(2010)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다층적 이론의 내용과 논거는 그 곳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이 이론의 열개만을 간단히 요약하겠다.

논증 6은 특정한 맥락을 떠나서 보면 그 논리적 지위에 있어서 사실상 동등한 논증이다. 논증 6도 어떤 논쟁의 맥락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지만 또 어떤 맥락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논증 4와 논증 6을 각각 흔히 평가하는 맥락에서는 논증 4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되고 논증 6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데, 그런 차이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맥락 상대성의 측면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준에 의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맥락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논증이 (그 맥락에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 왜 결함이 있는가는, 우리가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논증의 주된 목적에 입각해서 이해될 수 있다. 논증의 주된 목적은 전제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정당화함으로써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논증의 전제들이 논증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문장들이라면 전제들을 근거로 결론을 정당화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힘을 갖지 않을 것이다. 논증이 타당하거나 올바른 경우, 그 논증의 전제들을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서, 그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논증 상대방이 그 논증의 전제 (들중 최소한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논증이 아무리 타당하고 올바르더라도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논증은 논증의 주된 목적을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기에 문제를 지낸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맥락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논증이 지닌 문제는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 있어서 어떤 논증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지의 여부는 논증 자체가 가진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이 사용되는 맥락에서의 논증 상대방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자체로 훌륭한 논증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논증자의 모든 전제들을 거부하거나 의심한다면 그 논증은 그 상대방과 논쟁하는 맥락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로 논증 상대방이 완전히 무지하거나 고집스러워서 어떤 문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제시하는 어떠한 논증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이 첫 번째 기준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평가 방식 중 하나를 충실하게 포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평가는 논증에 대한 심각한 논리적 결함에 대한 지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¹³⁾

둘째 기준은 첫째 기준에서 제시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개념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II) 어떤 논증이 대부분의 또는 모든 맥락에서 (I)번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할 경우에, 그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 (어떤 논증이 더 많은 맥락에서 (I)번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할수록, 그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더 강하게 범한다.)¹⁴⁾

13) 최훈 교수는 필자의 이론(선우환(2010))을 화용론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이론으로 분류하지만(최훈(2011) pp. 291-293), 이는 필자의 이론을 이루는 세 기준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기준인 기준 (I)에만 온전하게 적용되는 분류이다.

14) 여기에서 양화되는 맥락들의 영역이 현실적 맥락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가능한 맥락들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맥락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할 수 있고, 그 중 합리성, 인식 가능성 등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맥락들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

이 기준은 정도의 차이를 허용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기준이다. 즉 한 논증은 기준 (I)의 의미에서 각각의 맥락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거나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논증이 이런 의미에서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맥락들의 수와 비율이 클수록 (II)의 의미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될 만하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논증이 모든 가능한 맥락에서 (I)의 의미에서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면 그 논증은 (II)의 의미에서 가장 강하게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평가된다. 앞에서의 논증 1과 같은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논증 상대방이 결론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서 전제는 받아들일 맥락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제에 근거해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평가되는 논증들은 무슨 결함을 지니는가? 논증의 주된 목적은 논증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있는데, 이런 논증들은 대부분의 또는 모든 맥락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논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증의 전반적인 설득 유용성이 떨어지는 논증들이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결론과 전제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논증의 설득적 유용성은 커진다. 그 ‘거리’가 멀수록 논증은 더 먼 ‘거리’에 있는 전제들로부터 논쟁 상대방을 결론으로 이끌어 올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전제들 중에 결론과 동일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논증이 논증 상대방을 어떤 만큼도 결론으로 이끌어 오지 못한다. 여기에서 ‘거리’라는 비유적 개념은 엄밀하게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 논증 상대방이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한 상황들(즉 논증이 설득적으로

다 상세한 이론 전개는 차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제들부터 결론의 ‘거리’가 멀다고 이해할 수 있다.¹⁵⁾ ‘거리’에 대한 이런 수량화의 시도는 하나의 안내 지침이 될 뿐이고, 엄밀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귀납 논증에서 뒷받침의 강도(strength)에 대한 엄밀한 수량화를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¹⁶⁾ 그럼에도 직관적인 ‘강도’ 개념에 입각해서 귀납적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이해된 ‘거리’ 개념 역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평가되는 논증이 지닌 문제는 첫째 기준에 의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평가되는 논증이 지닌 문제와는 달리 특정 맥락에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증 자체가 가진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만이나 잘못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득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결함에 해당한다.

셋째 기준은 둘째 기준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15) 논증이 설득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들이 많고 적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훈(2011, p. 296)은 이를 경험적 방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면서, 필자의 이론이 기술주의적 이론에 분류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한 논증이 설득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맥락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면서 결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해될 만하고 용인될 만한지에 대한 인식론적, 규범적 조건과 관계한다.

16) 귀납 논증의 강도에 대해서도 전제들이 참인 가능한 상황들 중에서 결론이 참인 상황들의 비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이해는 개념에 대한 안내 지침이 될 수 있을 뿐 엄밀한 규정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III) 어떤 논증이 (II)번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오류를 범하는 정도가 실제보다 약한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성이 있는 논증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그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

이 기준은 논증 5와 논증 7이 지닌 차이를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에 이용될 수 있다. 논증 5와 논증 7은 기준 (II)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동등하다. 두 논증에서 각각 문제되는 전제-논증 5의 전제 (2)와 논증 7의 전제 (1)-은 동일한 문장이고 결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 5에서는 다른 전제들이 함께 하여 마치 결론으로부터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이끌어내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 논증 7의 전제 (1)은 신의 존재를 곧장 함축하는 문장이고 논증의 결론이 그 전제만 가지고서 따라 나온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 반해, 논증 5에서는 전제 (2) 이외의 다른 전제들이 결론의 도출에 필요한 것처럼 오도되기가 쉽고 (2)가 그 자체로 곧바로 결론을 함축한다는 논리적 관계는 은폐한다.

논증의 전제들 중에 논증의 결론과 ‘거리’가 매우 가까운 문장이 있을 경우 그 논증은 설득적 유용성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고 (II)의 의미에서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전제들 외에 ‘거리’가 더 먼 전제들이 추가되어 마치 그 전제들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 그 논증은 이와 같이 설득적 유용성을 과장되게 오도하는 경향성을 지니게 된다. 논증이 가진 이런 결함은 (I)과 (II)의 의미에서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논증은 논증을 그 주된 목적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인 설득적 유용성의 정도를 기만하고

오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논증에 대해 그것이 이런 의미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논증을 통해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바로 잡는 중요한 논증 평가 요소가 될 만하다. 전제가 결론을 충분한 정도로 뒷받침하지 않을 때에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듯이 결론이 별로 먼 ‘거리’에 있지 않은 전제들로부터 정당화되는 것에 불과한데도 결론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전제들로부터 정당화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역시 심각한 논리적 오류인 것이다.¹⁷⁾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이상의 다층적 이론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여러 기준들이 가장 덜 심각한 오류 기준으로부터 출발해 가장 심각한 오류 기준에까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가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있는 논증의 주된 목적에 대한 고찰은 이들 여러 의미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들이 각각 어떤 이유에서 논증으로서의 결함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4.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와 순환성의 오류

흔히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와 순환성의 오류(the fallacy of circularity)는 서로 혼동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두 오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

17) 파워즈(L. Powers)는 Powers (1995)에서, 오류 논증을 (1) 나쁘면서 (2) 좋아 보이는 논증이라는 일반적 정의를 제시하는데,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필자의 기준 (III)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어떤 점에서 오류의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는가를 잘 드러낸다. 예를 들어 논증 5는 전체로부터 먼 거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서 마치 먼 거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잘 공유한다.

분하고자 한다.

다층적 이론의 세 기준 중 어떤 기준에 입각하건 간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어떤 하나의 논증이 결론으로부터 ‘너무’ 가까이에 있는 전제에 근거하기에 생기는 결함이다. ‘너무’ 가깝다는 것은, (I)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맥락에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논증 상대방이 전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II)에서는 대개의 통상적인 맥락에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논증 상대방은 전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III)에서는 전제들 중 최소한 하나가 결론으로부터 걸보기에 떨어져 있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순환성의 오류는 논증들의 체계가 순환적인 뒷받침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논증 체계가 가지는 결함이다. 즉 논증 체계에 속하는 한 논증의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증도 그 논증 체계에 있고 그 후자의 논증의 전제를 뒷받침하는 논증의 전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래 논증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그 논증 체계는 순환적 논증 체계를 이룬다. 요컨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하나의 논증이 범하는 오류인 반면, 순환성의 오류는 논증 체계가 범하는 오류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다음 논증을 상기해 보자.

(논증 5)

- (1) 성경에는 ‘신은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 (2) 성경은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
- (3)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책에는 참이 아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 (4)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위의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논증의 전제들 중 전제 (2)는 결론 (4)에 너무 가까이 있다. 그 전제는 유신론자가 무신론자를 설득하고자 그 논증을 사용하는 맥락에서 논증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전제이다. 또한 전제 (2)가 결론 (4)를 곧장 함축하므로, 그 전제는 그 논증의 복잡한 형식이 시사하는 바에 비해 결론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전제가 아니다.¹⁸⁾

이 논증이 범하는 오류는 다음 논증들로 이루어진 논증 체계가 범하는 오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논증 8)

- (1) 성경에는 ‘신은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 (2) 성경에는 참이 아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 (3)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논증 9)

- (1) 성경은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
- (2)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책에는 참이 아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 (3) 그러므로 성경에는 참이 아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¹⁸⁾ 논증 5는 그 자체로 순환성을 범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오해이다. 전제 (2)가 결론 (4)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고 (2)가 (4)를 너무나 곧장 함축하므로, (4)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와 (4)는 다른 내용을 가진 다른 문장이다. 논증 5를 통해서 결론 (4)를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2) ‘성경이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어떤 권위있는 사람의 말에 의거해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신의 존재를 함축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또는 그는 (2)의 신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가) 논증 5를 통해서 비로소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가 전제 (2)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4)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순환성의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다.

(논증 10)

- (1) 신은 존재한다.
- (2) 신이 존재한다면, 성경이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는 일은 없을 것이다.
- (3)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는다.
- (4) 그러므로 성경은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

이 논증들의 체계는 순환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논증 8의 전제 (2)는 논증 9에 의해 정당화되고, 논증 9의 전제 (1)은 논증 10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다시 논증 10의 전제 (1)은 논증 8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신은 존재한다’, ‘성경에는 참이 아닌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성경은 신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의 세 문장을 각각 논증 8, 논증 9, 논증 10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그는 이 세 문장 중 어느 문장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정당화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논증들의 체계에서 정당화에 이와 같은 순환적 구조가 나타날 때, 그 논증들의 체계가 순환성의 오류를 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증 체계 전체는 순환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이 체계를 이루는 각각의 논증들에는 (특정한 맥락을 떠나서 평가할 때) 아무런 논리적 결함이 없다. 각각의 논증은 각각의 전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면 훌륭한 정당화 논증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논증 8이 논증 9, 논증 10과 한 팀으로 나타날 때에는 당연히 논리적 오류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논증 8이 단독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 하나의 타당한 논증일 뿐이고 또 하나의 단독 논증으로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

도 아니므로, 그 논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전제들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에 대해 물을 수는 있되 (그리고 그 논증이 어떤 부적절한 파트너 논증을 가지는지는 않는지 경계를 해야 하기는 하되), 주어진 논증 자체로서는 논리적 오류를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¹⁹⁾

이상에서 보듯 우리는 개별적 논증에 대해 귀속시키는 오류인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와 논증들의 체계에 대해 귀속시키는 오류인 순환성의 오류를 구분하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⁰⁾ 이러한 두 종류의 오류를 구분하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살펴 볼 몇몇의 기존 이론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5. 잭슨의 이론과 논증의 두 기능

잭슨(F. Jackson)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그의 잘 알려진 논고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자체를 다루기 전에, 논증의 중요한 목적으로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구분한다.²¹⁾ 하나는 그가

19)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문장들이 참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보여지고 논증 8의 전제 (2)가 이로부터 귀납 논증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면, 논증 (8)은 순환적 논증 체계의 일부가 아니었을 것이다.

20) 순환적 논증 체계의 극단적 경우로서 하나의 논증으로 이루어진 논증 체계 이면서 그 논증의 결론이 전제에 다시 나타날 경우, 그 논증 체계는 가장 작은 순환 원을 가지는 순환적 논증 체계일 것이다. 이 경우는 그 논증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극단적인 사례를 범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그 경우 그 논증의 전제 하나는 그 논증의 결론으로부터 명백히 너무 가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논증 1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 논증 하나로 이루어진 논증 체계는 순환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특수한 경우에 순환성의 오류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거의) 같은 하나의 사례에 적용될 수도 있다.

21) Jackson (1987), pp. 101-107.

‘끄집어내기 기능(the teasing-out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논증 상대방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들로부터 함축되는 (그렇지만 대개는 그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함축되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이다. 또 하나는 증거 빌리기 기능(the evidence borrowing function)으로서, 이는 논증자가 자기가 결론을 받아들이는 근거로서의 전제들을 제시하고, 논증 상대방은 그 전제들을 원래부터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논증자가 그런 전제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도 그 전제들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결론까지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이다.

이 중에서 끄집어내기 기능은 필자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설득 기능에 다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증거 빌리기 기능은 필자가 이야기했던 보고 기능에 설득 기능이 결합된 복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논증자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논증을 보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논증 상대방을 설득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보고함으로써 설득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잭슨은 자신이 분류한 논증의 두 기능 중에서 증거 빌리기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자기 이론을 전개한다. 즉 그에 의하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논증이 증거 빌리기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이다.

잭슨의 이론에 의하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논증이다.²²⁾

주어진 결론에 대해 주어진 논증이 다음과 같다: 그 결론을 의심하는 어떠한 (온전한) 사람도, 그 전제들에 대한 증거가 증거 노

²²⁾ Jackson (1987) p. 111.

릇을 못하게 할 그런 배경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사례로 든다.²³⁾

(논증 11)

- (1)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타인들이 마음을 가진다고 믿는다.
- (2)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 (3) 그러므로 타인들이 마음을 가진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논증의 전제 (1)에 대한 (논증자의) 증거는 행동적 증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논증의 결론을 의심하는 사람(즉 타인의 마음에 대한 회의론자)은 행동적 증거가 마음에 대한 증거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이 논증은 잭슨의 이론에 의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올바르게 판정이 된다.

잭슨의 조건을 만족하는 논증은 왜 오류인가? 잭슨은 그것을 증거 빌리기 기능의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증거 빌리기를 하기 위해서 논증 상대방은 (그가 설사 결론을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논증자가 제시한 전제들이 논증자가 가진 적절한 증거에 기반해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결론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식론적 노동 분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결론을 의심하고 있는 논증 상대방이 가진 배경 믿음들이 (논증자의) 증거가 (논증자가 제시한) 전제들에 대해 증거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배경 믿음들이라면, 논증 상대방은 그 전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논증의 증거 빌리기 기능은 작동하

²³⁾ *ibid.*

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잭슨의 이론이 가진 문제점 또는 한계를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잭슨의 이론은 특정 부류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무어의 논증과 같은-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문제없이 적용되지만,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유형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논증들이 있다. 예를 들어 논증 1을 다시 생각해 보자.

(논증 1)

- (1) 공룡은 운석 때문에 멸종했다.
- (2) 그러므로 공룡은 운석 때문에 멸종했다.

이 논증에 대해 잭슨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이 논증에서는 전제와 결론이 같은 문장 P(‘공룡은 운석 때문에 멸종했다’)인데, 결론 P를 의심하는 사람이 반드시 전제 P에 대한 증거를 모두 증거력이 없게 하는 배경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공룡은 운석 때문에 멸종했다’라는 문장이 참임을 의심하지만 그 문장에 대한 어떤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 그 증거가 그 문장에 대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 1은 명백히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이다. 이 밖에도 앞에서 보았던 논증 2, 논증 3, 논증 5 등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지 잭슨의 이론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잭슨의 이론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오류인지를 논증의 증거 빌리기 기능과 연관시켜서 설명한다. 그러나 증거 빌리기 기능은 논증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아니며 또한 최소한 논증

의 유일한 기능은 아니다. 논증은 인식론적 노동 분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논증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끄집어내기’를 통해 설득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다.²⁴⁾ 증거 빌리기 기능은 이런 다양한 사용들을 포괄하지 못하기에, 그 기능을 통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규정하려고 하는 한, 다른 목적을 위해 논증을 사용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규정하지 못하게 된다.

6. 월튼의 이론과 순환성 조건

월튼(D. Walton)은 오류들에 대한 연구에서 화용론적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철학자이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그의 이론에서도 대화 맥락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등장한다.²⁵⁾ 그러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그의 이론에는 순환성 조건이라는 다른 요소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월튼의 이론에 의하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²⁶⁾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이 만족되어야

24) 2절에서 이런 사용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설득 기능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25) 월튼의 다양한 저작들 중에서도 Walton (1987, 1991, 1995a, 1995b, 2006) 참조.

26) Walton (1991) pp. 11-12. Walton (1995a) p. 230. Walton (2006)에서도 여전히 이 두 조건에 상응하는 두 조건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는데 그 중 하나는 논증의 순환성이다 (p. 275 참조).

한다. (i) 순환적 추론 계열(a circular sequence of reasoning)이 있어야 한다. 순환적 추론 계열에서는, 결론이 전제들 중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문제의 그 전제[전제 중 하나]가 결론에 의존해야 한다. (ii) 그 순환적 추론 계열은 대화의 맥락에서 입증의 합법적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즉 그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해서 두 개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그 두 조건이 결합해서 충분조건이 된다고 본다. 그 두 조건 중 첫째 조건이 순환적이라는 조건이므로, 그는 순환성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순환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괜찮지만, 결론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존재하는 대화 맥락에서 사용된 순환 논증이 잘못이며, 바로 그렇게 사용된 논증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이라는 것이다.²⁷⁾

그는 순환 논증과 선결문제를 요구하는 논증을 각각 유개념과 종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4절에서 논의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범주 착오(category mistake)를 범하는 것이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개별 논증에 대한 평가이고 순환성은 논증들의 체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이 지닌 이런 문제는 필자의 개념 구분을 참조하지 않고 그의 이론 자체만을 살펴보더라도 자체적으로 혼란과 어려움들을 낳는다는 것을 조금 뒤에 논의하겠다. 필자는 앞으로 주로 조건 (i)에 대해 문제를 삼도록 하겠다: 순

27) 윌튼은 순환 논증들 중에서 왜 어떤 순환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환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화용론적 고려들을 주로 적용한다. 그리고 윌튼 자신에게 당연히 이 부분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은 우선 순환 논증이어야 한다는 그의 기본적 가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기본적 입장부터가 논쟁의 중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환성 조건은 정말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기 위한 필요조건인가?

그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핵심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도 그 사례를 살펴보면서 논의하도록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고려한다.²⁸⁾

(논증 12)

- (1) 신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다.
- (2) 그러므로 신은 자비롭다.

그는 이 논증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필자가 보기에 옳바르게)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의 두 맥락을 예로 든다.²⁹⁾

(사례 a)

비신자인 설리가 신자인 밥에게 말한다. “너는 어떻게 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아니? 구약 성서의 어떤 부분들에 보면 신은 상당히 자비롭지 않아 보이던데.” 밥은 이에 대해서 위의 논증[논증 12]을 제시함으로써 대답한다.

(사례 b)

밥과 에드는 둘 다 <조그서(書)>를 경전으로 하는 한 종교의 맹

²⁸⁾ Walton (1995a) p. 231. 이 논증에는 ‘자비는 덕이다’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점은 우리 논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²⁹⁾ *ibid.*

렬한 신자이다. 에드가 밥에게 말한다. “밥소사. 나는 신이 자비로운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조그서>에 보면 비신자들은 두꺼비나 도마뱀으로 환생한다는 내용이 암시된 구절들이 있잖아.” 밥이 대답한다. “그래, 에드. 그러나 <샤를렌 복음>과 <배리 복음>에 신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 기억하지 못하니?” 에드가 대답한다. “오, 그래. 물론이야, 네가 옳아. 확실히, 신은 자비로와.”

그리고 나서 월튼은 논증 12가 사례 a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사례 b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필자도 이 판단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례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월튼의 설명이다. 그는 두 사례의 논의 구조를 각각 다음과 같은 도표들로 표시한다.³⁰⁾



그에 의하면, 사례 a의 논의 구조는 왼쪽 도표로 표현되고, 사례 b의 논의 구조는 오른쪽 도표로 표현된다. 사례 b에서는 전제 P에 대한 독립적 증거 T(<샤를렌 복음>과 <배리 복음>에 신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다고 나온다)가 존재한다. 반면 사례 a에서는 전제 P에 대한 독립적 증거가 없으므로 순환적이고 따라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설명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사례 a에 대

³⁰⁾ Walton (1995a), p. 232.

해 윌튼 자신이 적어 놓은 위의 서술 속에는, 밥이 P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밥이 P에 대한 증거로서 C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로부터 P로 향한 화살표를 왼쪽 도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리고 그런 화살표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 사례 a의 논증이 순환적이라는 판단에도 근거가 없다. 이 사례에서 밥은 P에 대해 단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P에 대한 근거로 C를 제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물론 사례 a의 내용을 변형시켜, 밥이 P에 대한 근거로서 C를 제시했다는 내용을 추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내용을 추가시키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례 a는 여전히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사례라는 직관적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는 맥락 상대적인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가 논증자가 전제에 대해 어떤 추가적 논증을 제시하는가(순환적 논증을 제시하는가, 아무 논증도 제시하지 않는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 상대방이 전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추가적인 증거로서, 만약 우리가 사례 a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시킨다고 해 보자.

(사례 a')

비신자인 설리가 신자인 밥에게 말한다. “너는 어떻게 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아니? 구약 성서의 어떤 부분들에 보면 신은 상당히 자비롭지 않아 보이던데.” 밥이 대답한다. “그래, 설리. 그러나 <찰렌 복음>과 <배리 복음>에 신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설리가 대답한다. “그렇지만 그 경전에 나

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참인지는 어떻게 아니?”

이 변형된 사례에서 밥의 논의 구조는 명백히 오른쪽 도표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는 P에 대한 증거로 T를 사용하는 추가적 논증을 제시한다. 다만 논증 상대방인 설리의 태도는 사례 b에서와 달리 여전히 전제 P(와 P에 대한 증거)에 대해 시큰둥하거나 의심하는 태도이며 어쨌든 그녀는 P를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의 직관적 판단은 사례 a'에서 선결문제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들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가 순환성 여부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애초에 월튼이 사례 a의 대화 상대방은 비신자로 설정하고 사례 b의 대화 상대방은 같은 종교의 맹렬한 신자로 설정한 것도 두 맥락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논증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의존하고 그런 직관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두 사례에 위의 왼쪽 도표와 오른쪽 도표의 차이를 내기만을 원했다면 굳이 대화 상대방에 그런 차이를 설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월튼이 이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개별 논증과 논증들의 체계를 잘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이 혼란을 낳는 또 하나의 원천이다. 위 도표들에서 각각의 화살표가 하나의 논증을 나타낸다. 각 도표 전체는 논증이 아닌 논증 체계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는 특정한 개별 논증(논증 12)이 (특정 맥락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논증 체계 전체의 구조가 순환적 구조인지의 여부에 의해서 내린다. 개별 논증에 대한 그런 평가와 논증 체계에 대한 그런 평가 사이에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가는 매우 의심스러운 문제인데, 그는 마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와 순환성 여부가 같은 것(논증)에 귀속되는

것처럼 논의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의 존재가 얼마나 의심스러운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만다.³¹⁾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월튼 자신이 제시한 사례를 가지고 논의해 왔지만, 다른 많은 사례들에서는 월튼의 이론이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많은 사례들은 순환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무어의 논증(논증 4)에서 전제들은 결론으로부터 논증되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논증하려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제 (1) ('나의 오른손이 존재한다')가 결론('외부 대상이 존재한다')으로부터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무어는 자신에게는 최소한 더 분명한 사실로부터 존재 일반화를 통해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전제를 다시 결론을 통해 논증하려고 시도할 이유는 전연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증은 외부 세계에 대한 회의론자와의 논쟁의 맥락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논증들(예를 들어 논증 2, 논증 3, 논증 5 등)도 마찬가지로 순환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순환성을 핵심적인 필요조건으로 하는 월튼의 이론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7. 샌포드와 바이로의 인식적 이론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이른바 '인식적 이론들(epistemic

31) 그가 앞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의 조건들을 정식화할 때에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추론 계열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여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순환적 추론 계열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불명료한 채로 남겨져 버려졌음에 주목하자.

theories)’에 따르면, 논증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가 여부는 그 논증의 전제들이 논증자에게 어떻게 알려지는가(또는 알려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샌포드(D. Sanford) 등의 주관적 인식적 이론에 따르면, 그 여부는 전제들이 논증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알려지는가에 달려 있고, 바이로(J. Biro) 등의 객관적 인식적 이론에 따르면, 그 여부는 전제들이 논증자를 둘러싼 객관적인 인식적 조건에 비추어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³²⁾

이 두 종류의 인식적 이론 사이의 차이는 바이로를 비판하기 위해 샌포드가 제시한 다음의 논증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더 분명해질 수 있다.³³⁾

(논증 13)

- (1) 클럽의 모든 회원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
- (2) 트바르도프스키는 클럽의 회원이다.
- (3) 그러므로 트바르도프스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

샌포드는 논증자가 전제 (1)을 알게 된 경위와 맥락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한다.

상황 1: (...) 클럽의 회원 자격이 텍사스 대학교 출신들에게로만 제한되는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실제로 실행 중이다. 이 규칙은 이 클럽에 왜 텍사스 대학교 출신이 아닌 회원이 없

³²⁾ Biro (1977), Sanford (1981), Biro (1984), Sanford (1988), Biro and Siegel (2006). 이 외에도 Pinto (2001), Goldman (2003), Lumer (2005) 등이 논증과 오류 일반에 대해서 인식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고 최훈 (2011) 등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해서 인식적 이론을 옹호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식적 이론가들인 샌포드와 바이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겠다.

³³⁾ Sanford (1988), p. 35.

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당신이 이를 알아내고자 했다면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알아내고자 하지 않았고 아무도 당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당신은 이 규칙에 대해 무지하다. 그러나 당신은 수년간 때때로 클럽 회원들과 잡담을 했다. 당신은 모든 클럽 회원들이 누구인지 안다. 당신은 그들 각각으로부터 그들 각각이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었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 클럽의 모든 회원이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는 당신의 믿음은 트바르도프스키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는 당신의 믿음에 근거한다.

상황 2: (...) 텍사스 대학교 출신들에게로만 제한되는 규칙이나 기능이나 목적이 클럽에는 없다. 그렇지만 트바르도프스키에 대한 어떠한 선행 믿음도 획득하지 않고서도 그 클럽의 모든 회원이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는 합당한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하나의 방법은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빙성 있는 증언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당신의 믿음들 중 어떠한 것도 트바르도프스키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한다.

샌포드는 자신의 이론에서는 상황 1에서는 논증자(‘당신’)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상황 2에서는 논증자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바이로의 이론에서는 반대로 상황 1에서는 논증자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황 2에서는 논증자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는 두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평결이 직관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적 이론이 바이로의 객관적인 인식적 이론보다 더 낫다고 주장

한다.

상황 1에 대해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샌포드는 논증자가 전제 (1)을 실제로 결론 (3)에 근거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환성이 발생했고 그래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로는 논증자가 순환적 논증을 하기는 했지만 순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인식적 통로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상황 1에서 사용된 논증 13에 대한 샌포드의 평결은 과연 옳은가? 그는 앞서 윌튼이 범했다고 지적했던 것과 유사한 범주 착오를 범하고 있다. 그는 개별적인 논증(논증 13)에 대한 평가를 논증들의 체계에 대한 평가로 은연중에 대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논증 13과 다음의 논증

(논증 14)

- (1) 클럽의 회원 트바르도프스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
- (2) 클럽의 회원 스미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
- (3) 클럽의 회원 앙겔로폴로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

:
:

(n) 그러므로 클럽의 모든 회원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

으로 이루어진 논증 체계가 순환적 논증 체계라는 것을 근거로 논증 13이 개별적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순환적 논증 체계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체계 속의 개별적 논증이 꼭 논증으로서의 결함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증자 자신은 불행히도 순환적 논증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논증 13을 제시한 맥락의 논증 상대방이 어떤 다른 근거에서 (예를 들어 클럽의 회원 자격에 대한 규칙을 통해서) ‘클럽의 모든 회원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문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논증은 그 상대방을 아무 문제없이 정당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 따라서 논증자가 논증을 어떤 경로로 발생시켰는가 하는 발생적 연원이 논증 자체의 주된 목적을 위한 논리적 효력(타당성이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이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심지어 논증 상대방이 논증 14와 같은 방식으로 ‘클럽의 모든 회원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문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논증 13을 제시해서 결론을 설득하는 것이 꼭 그 상대방에 대해(against)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어떤 이유에서이든 ‘클럽의 모든 회원은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문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머지 전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트바르도프스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문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논증 13은 상대방에게 설득한다. 물론 이 경우에 상대방이 ‘트바르도프스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문장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논증 13뿐이라면, 그는 두 문장 모두에 대해서 인식적 정당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은 그 논증 13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트바르도프스키는 텍사스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문장에 대한 인식적 정당화 근거를 갖지 못했던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논증에 대한 논리적 평가와 어떤 논증 체계를 가지고 믿음들을 형성한 인식 주체에 대한 인식론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에 샌포드의 이론이 옳다면, 논증자의 인식적 체계 전체에 대한 인식론적 논쟁의 결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논증을 논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논증자가 보통의 물질적 대상들에 대한 상식적 믿음들의 전체 체계가 순환적이라고 해 보자. ‘내 앞에 책상이 있다’는 믿음은 ‘나의 지각이 믿을 만하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나의 지각이 믿을 만하다’는 믿음은 ‘내가 정상적인 눈과 귀 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며... 나아가는 의존 연쇄가 순환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우려를 인식론자들은 자주 제기한다. 이런 우려는 인식론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우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 믿음을 전제로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논증들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여부가 의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이로의 이론에는 문제가 없는가? 상황 1과 관련해서 그의 이론은 논증 13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논증자가 순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제들을 알 수 있는 인식적 통로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 2와 관련해서는 샌포드는 바이로의 이론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이 경우에도 논증자가 순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제들을 알 수 있는 인식적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바이로의 이론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³⁴ 즉 바이로의 이론은 두 상황 모두와 관련해서 논증 13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인식의 가능성과 관련된 위의 상황이 모두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논증 상대방과 관련된 맥락이 어떻게 보충되는가에 따라, 논증 13이 그 논증 상대방에 대해(against)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클럽의 모든 회원이 텍

34) 바이로 자신이 이런 대답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Biro and Siegel (2006), p. 96.

사스 대학교 출신인지가 논쟁이 되고 있고 논증 상대방이 그런 일반 원칙의 예외로서 바로 트바르도프스키를 제시한다고 해 보자. 그런 상대방과 논쟁하면서 논증자가 논증 13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논증은 그 상대방에 대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논증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가 여부는 논증자의 인식적 상황(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샌포드 식의 주관적 인식적 이론도, 바이로 식의 객관적 인식적 이론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론일 수가 없다.

8. 맺음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논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반적인 제안을 한 후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이해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전 논문에서 제시했었던 다층적 이론을 논증 자체의 주된 목적에 대한 이 논문의 제안의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하고 이를 순환 논증과 구분해서, 그로부터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왜 잘못이고 오류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대한 기존의 주요 이론들-잭슨(F. Jackson), 월튼(D. Walton), 샌포드(D. Sanford), 바이로(J. Biro)의 이론들-을 필자의 이론에 대한 경쟁 이론들로서 고찰하면서 그 이론들이 각각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는지가 필자의 개념적, 이론적 작업으로부터 접근할 때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이라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논증의 증거 빌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로도, 순환 논증 중에서 (화용론적으로 명시된)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

는 논증의 오류로도, 논증자의 인식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오류로도, 만족스럽게 규정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논증이 제시되는 개별 맥락, 논증 자체가 가진 설득력, 논증이 (그 설득력에 대해서) 오도하기 쉬운 구조 등 다층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들 사이의 체계적 관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필자의 다층적 이론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올바르게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어려운 과업의 달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이론일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호 (2011), “선결문제요구와 논증평가론” 『범한철학』, 61, pp. 275-298.
- 선우환 (2010),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철학』, 104, pp. 185-214.
- 최훈 (2011),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인식론적 접근 옹호” 『범한철학』, 63, pp. 277-305.
- Biro, John (1977), “Rescuing ‘Begging the Question’”, *Metaphilosophy*, 8, pp. 257-271.
- Biro, John (1984), “Knowability, Believability and Begging the Question”, *Metaphilosophy*, 15, pp. 239-247.
- Biro, John and Siegel, Harvey (2006), “In Defense of the Objective Epistemic Approach to Argumentation”, *Informal Logic*, 26, pp. 91-101.
- Copi, Irving & Cohen, Carl, (1998), *Introduction to Logic* 10E. New York: Macmillan.
- Damer, T. E. (1980), *Attacking Faulty Reasoning*,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Eemeren, Frans H. van & Grootendorst, Rob, (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 Goldman Alvin I. (2003), “An Epistemological Approach to Argumentation”, *Informal Logic*, 23, pp. 51-63.
- Hamblin, Charles Leonard, (1970), *Fallacies*, London: Methuen.
- Hansen, Hans V. and Pinto, Robert C. (eds.) (1995), *Fallacie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Jackson, Frank (1987), *Conditio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ppert-Rasmussen, Kasper (2001), "Are Question-Begging Arguments Necessarily Unreasonable?", *Philosophical Studies*, 104, pp. 123-141.
- Lumer, Christoph (2005), "The Epistemological Theory of Argument-How and Why?". *Informal Logic*, 25, pp. 213-243.
- Mill, J. S. (1867/2002), *A System of Logic*,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 Moore, G. E. (1959), "Proof of an External World" *Philosophical Papers* (London: Allen and Unwin).
- Pinto, Robert C. (2001), *Argument, Inference and Dialectic*, Dordrecht: Kluwer.
- Powers, Lawrence (1995), "The One Fallacy Theory", *Informal Logic*, 17, pp. 303-314.
- Robinson, Richard (1971), "Begging the Question", *Analysis*, 31, pp. 113-117.
- Sanford, David (1972), "Begging the Question", *Analysis*, 32, pp. 197-199.
- Sanford, David (1981), "Superfluous Information, Epistemic Conditions of Inference and Begging the Question", *Metaphilosophy*, 12, pp. 145-158.
- Sanford, David (1988), "Begging the Question as Involving Actual Belief and Inconceivable without it ", *Metaphilosophy*, 19, pp. 32-37.
- Sorensen, Roy A. (1991), "'P, Therefore, P' Without Circularity," *The Journal of Philosophy*, 91, pp. 245-266.
- Sorensen, Roy A (1996), "Unbegging Questions", *Analysis*, 56, pp. 51-55.

- Sinnott-Armstrong, Walter (1999), "Begging the Quest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7, pp. 174-191.
- Walton, Douglas N., (1987), *Informal Fallacie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alton, Douglas N., (1989),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on, Douglas N., (1991), *Begging the Question: Circular Reasoning as a Tactic of Argumentation*, New York: Greenwood
- Walton, Douglas N., (1995a),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the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 in Hansen and Pinto (1995).
- Walton, Douglas N., (1995b), *A Pragmatic Theory of Fallacies*, Tuscaloosa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Walton, Douglas N., (2004), *Relevance in Argument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alton, Douglas N., (2006), "Epistemic and Dialectic Models of Begging the Question", *Synthese* 152, pp. 237-284.
- Woods, John, Andrew Irvine, and Douglas N. Walton, (2000), *Argument: Critical Thinking, Logic and the Fallacies*, Toronto: Prentice Hall.

연세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hsunwoo@yonsei.ac.kr

Why Is Begging the Question a Fallacy?:
the Purpose of Arguments and Evaluations of Begging the Question

Hwan Sunwoo

In order to explain why begging the question is a fallacy, some of the challenges must be met. First we need to understand what begging the question is in subtle way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nature and the purpose of arguments in order to explain why begging the question is a fallacy.

In this paper, I first have a general proposal about the main purpose of arguments. Then I place my own multi-layered theory of begging the question proposed in a previous study in the context of the proposals in this paper for the main purpose of arguments. Moreover, I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theory of why begging the question is a fallacy. Finally, I examine and criticize the main previous theories of begging the question, such as Frank Jackson's theory, Douglas Walton's theory, David Sanford's theory, John Biro's theory.

Key Words: the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 the purpose of arguments, the fallacy of circularity, Frank Jackson, Douglas Walton, David Sanford, John Biro.